

초등학생의 음악 창작품 평가에서 창의성 및 다른 변인 간의 관계 분석

박 은 실*

본 연구는 음악 창작품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창의성, 미적 매력, 기술적 능숙함, 공감, 호감, 분위기의 총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 변인별 특징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5학년 201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6개 음악 창작 결과물이 평가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중 분위기를 제외한 5개 변인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했으며, 분위기 변인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분위기 범주와 각각의 변인의 평균이 음악 창작결과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모든 변인들은 서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sim p < .001$). 이 연구를 통해 음악 창작품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평정자들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미치고, 작품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서로 관련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음악 창작, 창의성, 함의적 평가기법, 정서변인, 창작품 평가

차 례

- I. 서론
- II. 창의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 2. 자료 분석 방법
 - 3. 연구의 제한점
- IV.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대진도솔초교 교사(eunhyunp@empas.com)

I. 서론

학생들의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작품을 들으면서 그 작품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이 듣기 좋은지, 음악적으로 능숙하게 잘 만들어 졌는지, 내가 좋아하는 선율인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성 평가에서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창의성과 좀 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관련성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음악 창작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애머빌(T. M. Amabile)의 합의적 평가기법(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은 창의성에 대한 주관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창의성 개념이 무엇인지, 즉 어떤 작품을 창의적이라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이러한 창작결과의 평가에서 창의성이 아닌 다른 항목을 평가할 때 각자의 항목들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창의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애머빌은 평가자들이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창의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여기에는 기술적 능숙함, 미적인 매력, 호감, 새로움, 규칙성, 복잡함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Amabile, 1996, 46~48). 그러나 작품을 평가할 때 정서적인 역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음악 작품을 들을 때 발생하는 정서 변인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adocy & Boyle(1997)은 음악이 정서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음악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 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음악적 특징과 개인이 속한 문화, 연령, 성별, 음악교육 정도 등에 의해 음악에 대한 정서반응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Kratus, 1993; Gerardi, 1995; Coffmann, 1995; Egermann & McAdams,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서반응이 음악에서의 창작품을 평가하는데 창의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서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음악 창작품을 평가함에 있어 창의성을 비롯하여 5개의 항목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고,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음악 창작품의 평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나아가 음악 창작 수업 및 평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과 미적 매력 및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의 평균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2)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과 미적 매력 및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 3)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분위기 변인은 작품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II. 창의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

애머빌은 평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합의를 통해 창의성을 평가하는 합의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합의적 평가기법을 개발하면서 평가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성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예술적 판단에 관한 합의적 평가기법 연구에서는 기술적 능숙함(Technical goodness), 미적 매력(Aesthetic appeal) 등을 비롯한 19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 창의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로는 새로운 생각, 호감, 복잡함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적 능숙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로 구조화, 균형잡힘 등이 있었다. 그리고 미적 매력은 창의성과 기술적 능숙함 모두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Amabile, 1996, 48).

이러한 예술적 판단의 다양한 차원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창의성, 기술적 면, 미적 판단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항목들이 묶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창의성에는 새로운 생각, 노력, 다양한 형태, 세밀함, 복잡성 등이 포함되었고, 기술적인 면에는 구조화, 균형 잡힘, 계획, 의미의 표현 등이, 마지막으로 미적 판단에는 호감, 미적 매력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주로 미술, 시 등과 같은 다른 영역의 창작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음악에서는 이들 항목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창작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창의성, 미적 매력, 기술적 능숙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특히 정서적인 면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창작결과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물론 결과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지와 정서적인 면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의 합의적 평가기법에서 창작품 평가의 여러 차원 중 하나로 언급된 ‘호감’을 비롯하여 다른 정서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정서변인들에는 명확한 정의와 구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 추론된 구인들로는, 분위기(mood), 정서(empathy), 공감(empathy), 느낌(feeling), 관심(interests), 태도(attitudes), 취향(taste), 선호(preference) 등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품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서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의적 평가기법에서 사용한 ‘호감’ 이외에 음악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음악에 대하여 공감하는 정도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음악과 정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이나 맥박 등과 같은 신체의 생리학적 신호를 측정하는 심리생리학적 방법, 행동적 변화를 측정하는 행동적 방법, 형용사를 이용한 형용사 체크리스트, 의미변별법, 그 밖의 다양한 척도 등이 포함되는 언어적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언어적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앞의 합의적 평가기법에서의 창의성을 제외한 기타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감에 대한 여러 정의에 근거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Kalliopuska, M. & Ruokonen, I., 1993; Carlozzi et al., 1995; Eggermann & McAdams, 2013).

음악이 주는 분위기, 기분, 정서 등에 대한 연구는 음악에 대한 언어적 반응들을 몇 가지 범주로 유목화 해보거나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송승민, 2010; 박경신, 2013; 신지은, 2016; 지성애·최다은, 2017). 이러한 언어적 범주화는 정서의 구조 및 구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은 다양한 정서 단어들을 수집하여 기본적으로 상위 수준에서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고, 두 번째 차원으로 정서의 활성 강도에 의해 진정과 자극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pstein, 1984; Shaver et al., 1987; 이준웅 외, 2008) 이렇게 만들어진 네 범주에 해당되는 형용사들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서 분석의 네 범주(예시)

분 류	단 어
긍정-활성	즐거움, 경쾌함, 행복한, 맑은
긍정-진정	부드러운, 평화로운, 포근함, 편안한, 고요한
부정-활성	아픈, 슬픈, 처량함, 그리움, 날카로운, 딱딱함
부정-진정	우울함, 외로운, 무거운, 단조로운

이러한 정서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음악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음악 내적인 요인으로는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 즉 조성, 빠르기, 리듬, 선율의 복잡함, 음색 등과, 그리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특정한 패턴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음악 외적인 요인, 즉 사회 문화적 특징 및 개인적인 특징, 즉 음악 문화, 성별이나 연령, 음악적 경험 및 지식의 정도 등도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작품의 특징과 정서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영향들이 단순하거나 일정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Kratus, 1993; Radocy & Boyle, 1997; 송승민, 2010; Egermann & McAdams, 2013; 박경신, 2013).

한편 공감과 관련된 연구들 중 Carlozzi et al.(1995)는 상담과 교육심리를 수강 신청 한 56명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공감, 독단성, 표현성을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공감이 창의성과 정적 상관, 독단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Egermann & McAdams (2013)의 연구는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이 음악에 대한 친숙함과 호감과 상호관련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 특징 및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음악작품이 아닌 창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정서 변인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작품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특히 창의성과 다른 변인들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서 변인들 가운데 호감, 공감, 그리고 분위기(기분)를 포함시켜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6개의 음악 창작결과를 들려주고, 각 결과물에 대해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6개 항목 중 작품에 대한 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분위기’ 항목은 작품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1. 연구 대상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대전 ○○초등학교 5학년 8개 반 학생 201명(남 104명, 여 97명)이다. 합의적 평가기법에서 창작품에 대한 평정자가 동료 학생들일 경우 주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Hickey, 2001; Cooper, 2016), 음악에 대한 언어적 반응을 수집하는데도 고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69.2%)이 학교 음악교육 이외에 방과후교실이나 악기 레슨 등을 통하여 음악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었다.

2) 연구 절차

(1) 창작결과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창작결과 6개는 연구자가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가제: Creativity as an emic or etic phenomenon: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creativity in music com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의 데이터로,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창작결과이다.

이 결과물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이 musescore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작한 것으로, 사전에 4차시에 걸쳐 창작 수업을 하였고, 8마디, 4/4박자, 다장조로 프로그램 설정을 해 놓고 창작을 하도록 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창작결과에 대해 합의적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성 평가를 하였고¹⁾,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점수가 높은 작품 3점(작품 2, 4, 5), 창의성 점수가 낮은 작품 3점(작품 1, 3, 6)을 이용하였다.

1) 창의성 평정자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생에게 음악을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지도하고 있는 음악교육석사 혹은 박사로 나라별 각각 5명씩, 총 10명이 평정에 참여하였다.

(2) 검사도구 준비

창의성과 함께 분석할 변인으로, 여러 합의적 평가기법의 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중 창의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능숙함(Technical goodness)’과 ‘미적 매력(Aesthetic appeal)’, 그리고 정서변인에 해당하는 ‘호감(Likeness)’을 포함시켰다.

먼저 창의성 항목은 창의성에 대한 5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기술적 능숙함’은 음악적으로 능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미적 매력’은 미적으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정도, ‘호감’은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Amabile, 1996, 46).

‘공감(Empathy)’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민감성, 즉 타인의 느낌을 알아내는 것과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을 포함시켰다(Carlozzi et al., 1995; Treadaway, 2009; Egermann & McAdams, 2013).

이상의 변인들 중 분위기를 제외한 5개 변인들은 하나의 검사지 안에 리커트 5점 척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분위기’ 변인은 빈 칸에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3) 검사실시

검사는 2018. 4. 12. ~ 2018. 4. 24. 동안 실시하였다. 하루 한 학급씩 연구자가 직접 5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에 앞서 들려줄 창작결과와 검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① 다음 들려주는 6개의 음악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이 창작한 것입니다. 각 작품을 여러 번 들으며 아래의 6가지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② 각 점수마다 똑같은 수의 작품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1~5점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세요. 모든 작품에 1점, 혹은 5점을 주는 것은 삼가 주세요.
- ③ 6가지 항목은 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분위기입니다(한 번 들을 때마다 한 개의 항목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창작결과는 모두 6번씩 반복해서 들려준 셈이 된다).

- * 창의성(Creativity): 여기에서 특별히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학생 각자 생각하는 창의성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 * 미적 매력(Aesthetic appeal): 음악을 들었을 때 매력이 느껴지는, 끌어당기는, 관심을 갖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정도
- * 능숙함(Technical goodness): 음악적으로 가락 및 리듬 등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
- * 공감(Empathy): 작품이나 작품이 주는 느낌에 공감하는 정도, ‘나라면 ~?’

* 호감(Likeness): 작품의 좋고 싫은 정도

* 분위기(Feeling or Mood): 학생이 작품을 들으며 느껴지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

충분한 안내 이후 mp3파일로 녹음된 창작결과를 들려주며 검사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음악 창작결과와 제시순서는 학급별로 다르게 하였으며, 총 검사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5학년 학생들의 평정 결과는 코딩 절차를 거쳐 IBM SPSS v.2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분위기’에 대한 서술은 긍정-활성, 긍정-진정, 부정-활성, 부정-진정의 네 개 범주별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하였다. 먼저 각 창작결과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 1을 위하여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 평균 차이를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변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분위기에 대한 네 개 범주별 빈도수와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및 기타 여러 변인에 대한 평정 결과를 분석하여 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 및 다른 변인의 평정에 대한 발달적 변화 및 연령 차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평가 가능한 여러 가지 변인들 중 6개의 변인만을 연구에 사용하고 있음을 제한점으로 가지고 있다.

IV. 결과

6개의 음악 창작결과에 대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총 6개의 변인(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분위기)에 의해 작품을 평정하였다. 먼저 신뢰도는 크론바흐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816으로 작품별 신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창작 작품별 신뢰도 계수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작품5	작품6
Cronbach α	.466	.811	.841	.724	.732	.759

위의 신뢰도 계수를 보았을 때 작품 1을 제외하고 대체로 학생들의 평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문제별 결과이다.

1.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과 미적 매력 및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의 평균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음악 창작결과물 6개에 대해 학생들이 항목별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3> 창작 작품별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작품 1	창의성	2.60 (.944)	작품 2	창의성	3.36 (1.209)	작품 3	창의성	2.88 (1.013)
	미적매력	2.97 (1.195)		미적매력	2.93 (1.329)		미적매력	2.72 (1.055)
	능숙함	3.25 (1.171)		능숙함	2.71 (1.252)		능숙함	3.12 (1.010)
	공감	3.02 (1.166)		공감	2.64 (1.328)		공감	2.87 (1.038)
	호감	3.04 (1.191)		호감	2.70 (1.308)		호감	3.00 (.957)
작품 4	창의성	3.93 (.977)	작품 5	창의성	4.56 (.792)	작품 6	창의성	2.28 (1.176)
	미적매력	4.10 (1.025)		미적매력	4.49 (.901)		미적매력	2.03 (1.153)
	능숙함	4.16 (.914)		능숙함	4.59 (.838)		능숙함	2.35 (1.170)
	공감	4.04 (.984)		공감	4.36 (1.025)		공감	2.25 (1.269)
	호감	4.20 (.997)		호감	4.48 (1.000)		호감	2.20 (1.292)

위의 기술통계 결과 작품 2, 4, 5의 창의성 점수가 작품 1, 3, 6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창작품에 대한 성인 평정자들(p.7의 각주 참조)의 창의성 점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점수에서는 다른 작품의 경우 창의성 점수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였지만, 작품 1과 작품 2의 경우, 창의성 점수가 낮은 작품 1이 창의성 점수가 높은 작품 2보다 미적 매력 등 기타 변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에 대한 반응 차이를 비교했을 때 작품 3을 제외하고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작품 3의 호감에 대한 평균이 남자가 3.14점, 여자가 2.86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 < .05$),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작품 3의 미적 매력(남자 2.86, 여자 2.58)과 공감(남자 3.00, 여자 2.72)에서도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2.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과 미적 매력 및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작품별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표 4> 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변인별 상관분석 결과
작품 1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419**	.291**	.371**	.361**
미적매력		1	.499**	.413**	.580**
능숙함			1	.451**	.437**
공감				1	.651**
호감					1

** $P < .001$

작품 2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511**	.421**	.388**	.385**
미적매력		1	.408**	.578**	.512**
능숙함			1	.621**	.621**
공감				1	.672**
호감					1

** P< .001

작품 3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362**	.259**	.356**	.346**
미적매력		1	.319**	.427**	.373**
능숙함			1	.264**	.300**
공감				1	.439**
호감					1

** P< .001

작품 4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326**	.304**	.325**	.230*
미적매력		1	.400**	.398**	.438**
능숙함			1	.366**	.338**
공감				1	.407**
호감					1

* P< .01, ** P< .001

작품 5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391**	.306**	.190*	.231*
미적매력		1	.519**	.458**	.511**
능숙함			1	.421**	.417**
공감				1	.424**
호감					1

* $P < .01$, ** $P < .001$

작품 6

	창의성	미적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창의성	1	.532**	.388**	.504**	.360**
미적매력		1	.500**	.555**	.469**
능숙함			1	.543**	.490**
공감				1	.579**
호감					1

** $P < .001$

상관분석 결과 대체로 모든 변인들이 높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각 작품별 가장 높은 상관이 보이는 변인들을 알아보면, 작품 1의 경우 공감과 호감(.651), 작품 2의 경우 공감과 호감(.672), 작품 3의 경우 역시 공감과 호감(.439), 작품 4의 경우 미적 매력과 호감(.438), 작품 5의 경우 미적 매력과 능숙함(.519), 작품 6의 경우 공감과 호감(.579)를 보여, 총 4개 창작품에서 다른 변인들보다 공감과 호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의성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을 알아보면, 작품 1의 경우 미적 매력(.419), 작품 2의 경우 미적 매력(.511), 작품 3의 경우 미적 매력(.362), 작품 4의 경우 미적 매력(.326), 작품 5의 경우 역시 미적 매력(.391), 마지막으로 작품 6의 경우에도 미적 매력(.532)으로 모든 작품에서 창의성과 미적 매력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숙함의 경우 작품 1, 3, 4, 5에서 미적 매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작품 2에서는 공감과 호감, 작품 6에서는 공감이 다른 변인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음악 창작결과에 대한 분위기 변인은 작품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창작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분위기 반응은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용어들을 분류 및 범주화 한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2008)의 연구와 악기 음색 및 조성에 대한 정서반응 연구인 송승민(2010)의 정서 분류를 참고로 하여, 범주화하였다. 먼저 긍정-부정의 차원으로 나누었고, 여기에서 다시 긍정-활성, 긍정-진정, 부정-활성, 부정-진정의 4개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기술한 분위기 내용을 범주별로 정리한 빈도 분포이다.

<표 5> 창작결과별 분위기의 범주별 분포

단위: 빈도수(%)

	긍정-활성	긍정-진정	부정-활성	부정-진정
작품 1	78(47.0)	61(36.7)	19(11.4)	8(4.8)
작품 2	54(29.3)	8(4.3)	87(47.3)	35(19.0)
작품 3	91(48.7)	49(26.2)	15(8.0)	32(17.1)
작품 4	138(71.5)	45(23.3)	4(2.1)	6(3.1)
작품 5	135(68.9)	43(21.9)	15(7.7)	3(1.5)
작품 6	11(7.6)	33(22.8)	41(28.3)	60(41.4)

위의 표에 의하면 작품 1, 작품 3, 작품 4, 작품 5의 경우 긍정-활성의 정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와 달리 작품 2는 부정-활성 정서가, 작품 6은 부정-진정의 정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의 4개 범주 안에 포함되기 어려운 단어들 중 중복되어 나온 단어들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창작결과별 분위기에 대한 기타 기술 내용

작품 1	많이 들어본, 따라한, 캉캉, 표절
작품 2	막치는, 엉뚱한, 뒤죽박죽
작품 3	초라한, 음이 높아지는, 특이한
작품 4	서로 연결된, 용기 있는, 진지한
작품 5	거미줄, 빗소리, 조마조마
작품 6	끊어진, 대충, 물(빛)방울, 어린이 연주, 통통, 하나씩

더불어 각 범주에 대한 남녀 차이를 χ^2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이 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작품 1과 작품 6이었다.

<표 7> 창작결과별 분위기에 대한 성별 차이

		긍정-활성	긍정-진정	부정-활성	부정-진정	χ^2
작품 1	남	47(60.3)	30(49.2)	5(26.3)	5(62.5)	7.880*
	여	31(39.7)	31(50.8)	14(73.7)	3(37.5)	
	계	78(100)	61(100)	19(100)	8(100)	
작품 6	남	2(18.2)	14(42.4)	28(68.3)	35(58.3)	11.292*
	여	9(81.8)	19(57.6)	13(31.7)	25(41.7)	
	계	11(100)	33(100)	41(100)	60(100)	

* $P < .05$

위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 1에서는 둘 다 긍정-활성이 가장 많았지만 여자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가 남자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품 6은 남녀 모두 부정-진정이 가장 높지만 남자는 부정-활성이, 여자는 긍정-진정이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1과 6모두 창의성 점수가 낮은 작품으로, 작품에 따라 남녀 간 동일한 작품에 대한 정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음악 창작결과에 대해 항목별로 평정한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성 점수는 본 연구에 사용된 창작결과가 산출된 이전 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창의성이 높은 작품과 낮은 작품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음악교육 전공 교사의 창의성 평정과 또래 집단의 평정이 모두 신뢰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Hickey(2001)과 Cooper(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작품1의 경우 다른 작품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즉 작품 1이 다른 곡(‘천국과 지옥’ 서곡)의 일부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마다 다른 판단과 반응을 보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 1과 작품 2의 경우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점수가 창의성 점수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도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 1의 경우 이미 있는 곡을 사용하였지만 학생들에게는 익숙하고 듣기에 좋은 선율이므로 공감과 호감 점수가 높았다. 작품 2의 경우 가락과 리듬의 복잡함, 다양성 등으로 인해 창의성 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변인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함, 새로움 등이 창의성과 상관이 높다는 Amabile(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만 능숙함과 미적 매력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균형과 구조 등과 관련된 음악적 특징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작품 3의 호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남녀 간 좋아하는 음악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정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남녀 간의 성향, 혹은 음악교육 경험 및 지식의 정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Kratus(1993)의 경우 특별한 남녀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송승민(2010)의 연구에서도 악기와 장단조 구성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박경신(2013)은 화음전개가 정서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텐션화음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차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연구는 사용된 음악, 검사 환경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는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창의성,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등의 모든 변인들이 서로 높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Amabile(1996)에서 창의성이 미적 매력, 능숙함, 호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과도 일치하며, Carlozzi et al. (1995)의 연구 창의성이 공감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6개 창작성 중 4개에서 공감과 호감이 서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작품에 공감하는 것과 그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고 좋아하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germann & McAdams (2013)의 연구에서 음악에 대한 정서반응이 친숙함, 호감 등과 관련이 크다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감과 친숙함, 호감 등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의성은 모든 작품에서 다른 변인보다도 미적 매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Amabile(1982)의 연구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물론 창의성이 미적 매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만,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에 사용된 검사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능숙함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작품 1, 3, 4, 5의 경우 미적 매력이 가장 높았고, 작품 2와 6의 경우 공감이 가장 높았다. Amabile(1996)에 의하면 능숙함은 미적 매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감과의 상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없으나 작품의 음악적 특징에 의한 차이일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기술 내용은 개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은 창의성을 비롯하여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등의 변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작품 2가 작품 1보다 창의성 점수는 높지만 미적 매력, 능숙함, 공감, 호감 점수가 더 낮은 점, 그리고 능숙함이 작품 2와 작품 6에서만 공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온 점 등은 작품 2가 복잡하고 새로운 점에서 창의성 점수는 높지만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작품 6은 한 마디에 4분음표 하나씩만 등장하는 등의 특징으로 선율이 단조롭고 자연스런 연결이 안 되는 점 등이 부정-진정의 분위기를 가져온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분위기에 대한 남녀 차이는 작품 1과 작품 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작품 모두 창의성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남녀 차이 역시 연구문제 1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성향 및 음악교육 경험의 정도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음악 창작품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평정자들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미치고, 작품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서로 관련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작품의 음악적 특징 뿐 아니라 평정자의 성별, 음악교육 정도, 성향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평정자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음악창작을 한 대상과 같은 또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의성에 대한 개인적 창의성의 관점에서(Baer, 1997; 박은실, 2012) 학생들이 속한 맥락 안에서 가장 새롭고 흥미로운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변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성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에 제시하였듯이, 음악 창작품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하여 문화비교 연구, 발달 연구, 성차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창의성에 대한 개념의 정교화 및 그를 통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박경신 (2013). 음악의 화음전개가 정서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은실 (2012). 창의성 연구의 다양한 시각과 함의들. **음악교육연구**, 41(1), 61-88.
- 송승민 (2010). 해금과 바이올린 음색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및 선호도 연구 - 장조와 단조 곡의 비교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지은 (2016). 케이트 헤브너 ‘감정형용사’의 연기훈련 적용에 관한 연구 - 음악과 감정표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정서단어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 지성애 · 최다은 (2017). 유아의 창의성과 지적능력, 공감능력 및 그리기표상능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3), 241-268.
- Amabile, T. M. (1982). Children's artistic creativity: detrimental effects of competition in a field set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573-578.
- _____ (1996). *Creativity in context*. Colorado: Westview Press.
- Baer, J. (1997). *Creative teachers, creative student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onny, H. L., & Savary, L. M. (2006). **음악과 마음**. 최미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arlozzi, A. F., Bull, K. S., Eells, G. T., & Hurlburt, J. D. (1995). Empathy as related to creativity, dogmatism, and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4), 365-373.
- Coffman, D. D., Gfeller, K. G., & Eckert, M. (1995). Effects of textual setting, training and gender on emotional responses verbal and musical information. *Psychomusicology*, 14, 117-136.
- Cooper, P. (2016). Examining correlations when using Amabile's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to support validity of teachers as expert judges. In J. A. Bugos (Ed.), *Contemporary Research in Music Learning Across the Lifespan*. (pp.137-150). NY: Routledge.
- Egermann, H., & McAdams, S. (2013). Empathy and emotional contagion as a

- link between recognized and felt emotions in music listening. *Music Perception*, 31(2), 139-156.
- Epstein, S. (1984). A procedural note on the measurement of broad dispositions. *Personality*, 52(4), 318-325.
- Gerardi, G., Gerken, L. (1995).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responses to modality and melodic contour. *Music Perception*, 12(3), 279-290.
- Hickey, M. (2001). An application of Amabile's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for rating creativity of children's musical composition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234-244.
- Kalliopuska, M. & Ruokonen, I. (1993). A study with a follow-up of the effects of music education on holistic development of empath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131-137.
- Kratus, J. (1993). A developmental study of children's interpretation of emotion in music. *Psychology of Music*, 21, 3-19.
- Radocy, R. E. & Boyle, J. D. (199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1086.
- Treadaway, C. (2009). Materiality, memory and imagination: using empathy to research creativity. *Creativity and Cognition Conference*, 42(3), 231-237.

ABSTRAC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Other Variables in Judging Musical Creation
Resul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k, Euns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reativity and aesthetical appeal, technical goodness, empathy, likeness, and mood variab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udgment of musical creation results. A total of 201 students from 5th grade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The results of 6 music composition were evaluated by 6 variables. 5 items except the mood were responded with the Likert scale and the mood item responded with free descriptions.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mood categories and means of each variables were differed by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composition produc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on the whole($p < .01 \sim p < .001$).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said that the musical features of musical creations influenced thoughts and feelings of judges, and that the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bout musical crea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affect the evaluation in a complex way.

Key words: music composition, creativity, 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emotional variables, judgement of music creations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15일), 게재확정일: 11월 2일